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안

의안
번호

126

제안년월일 : 2003. 9. 27.

제안자 :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1. 주 문

- 목포시 갯바위 근린공원에는 기능이 유사한 3개의 해양관련 전시시설이 위치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시효과 극대화를 위해 시설의 통합 운영이 절실함.
-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과도 부합되고 국가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 및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을 통합 가칭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함.
 - 제1관 : 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선박사 및 해양 유물사)
 - 제2관 : 현 향토문화관 (해안지역의 해양생활사 및 문화사)
 - 제3관 : 신축 자연사박물관 (해양지질, 생물, 생태 등 자연사)

2.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오랜 해양문화와 역사를 일구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조선, 해운 강국이지만 뿌리깊은 해양문화 선진국임을 표방할 종합적인 연구 및 문화시설이 미흡한 실정임.
- 나. 목포시를 중심으로한 서남권은 역사적으로 해양문화가 발달하였고, 인근 지역인 신안, 완도, 비안도 등지에서 해저유물이 발굴되는 등 해양문화유산이 풍부한 목포에 국내 유일의 해양박물관 건립으로 국제 수준의 해양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가칭 “국립해양박물관 통합 승격” 건의문

해양 우세전략인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론과 같이 오늘의 세계는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의 보편적인 추세속에 해양화시대가 강조되고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정책에 대한 부문별 연구기관 설치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은 청해진의 해상왕 장보고, 신안해저 유물 등 해양 역사적인 전통과 해양 지향적인 힘이 가장 응축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 곳에 제대로 된 국립박물관을 설립하여 선조들의 찬란한 해양전통문화를 발굴·계승·발전시켜야하고 선진 해양한국의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특히 목포시 갯바위 근린공원에는 기능이 유사한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 및 현재 신축중인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이 한 곳에 위치해 있어 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서 해양역사와 문화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사회교육 기능을 갖춘 특성화된 국립박물관으로의 설립 여건이 최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민의 뜻을 모아, 우리나라 해양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역사의식 고양을 물론 국토의 서남권에 지역 특성을 살린 해양관광거점 확보로 국가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향토문화관 및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을 통합한 가칭 『국립해양박물관』으로 승격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3년 9월 29일

목 포 시 의 회 의 원 일 동